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 보 란

Saeboram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2·3월 283호

(02)796-4280 www.kappd.or.kr



뉴스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3P



특집
2017년 신년인사회
포토리뷰
▶12P



국제
가벼운 보행 지원 슈트
'엑소슈트' 개발
▶15P



인물
세계 최초 장애인 14차
도전, 산악인 김홍빈
▶19P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신년인사회 개최

“장애인 복지 선진화에 앞장설 것”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새해를 맞아 한 해의 청사진을 그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2월 1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한 해 실천계획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해에 3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제 새로운 30년 미래를 향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정직함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깨끗한 지장협을 만들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선진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

을 환영하기 위해 방문한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정의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충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최근 4년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 해 실천계획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은 경

과보고에서 “지장협은 제7대 김광환 중앙회장 취임 후 미션과 비전을 선포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장애인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교육과 감사양성 등 인권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특강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2017년 실천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본격화 △장애인 문화체육 지원 방안 체계적 정립 △장애인 정보지원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선언했다.

특강에 이어 김광환 중앙회장은 17개 시도협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현판을 전달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는 김광환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 이광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연철흠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윤은희, 이숙애 도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실천계획을 다짐했다.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세계 각국 우수 휠체어마라토너 대거 참가 오는 4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려



▲ 지난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발 모습.

지난 리우패럴림픽에서 한국

의 김규대 선수가 동메달을 따

며 감동을 선사한 휠체어마라

톤, 그 치열한 환희의 레이스

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세계적

인 엘리트 휠체어마라톤선수들

이 대거 참가하는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내 유일한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IPC Athletics)의 공인대회다.

이 대회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종목에 이어 하프마라톤 (21.0975km), 휠체어경쟁 5km,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경기인 비경쟁 어울림부 5km, 핸드사이클 하프 (21.0975km) 경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장애인과 마라톤을 즐기고 싶은 비장애인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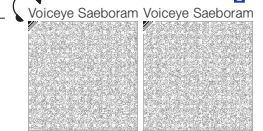
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3면에 계속〉





장애인복지 발전의 주역, 지체장애인 인물 집대성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이룩한 ‘도전의 역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년사Ⅱ 조직&인명록 발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년사 Ⅱ 조직&인명록’을 발간했다.

지장협은 지난해 11월 11일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년사’를 발간했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한국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온 대표적 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고 정리하여 이를 집대성해 지난 2월 15일 새로운 책자를 내놓았다.

이 책은 지장협의 전국 17개 시·도 협회 및 산하 지회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지장협의 조직구성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인물 651명의 개인 활동 기록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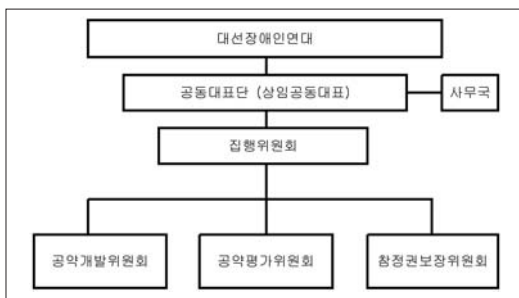
했다. 198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지체장애인 개인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한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사고와 관점으

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장협 30년사 조직&인명록 도서 정가는 10만원이며 총 1448쪽에 이른다. 지장협은 이 책자를 전편에 이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전국 주요 13개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본 과정을 완료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30년사 조직&인명록을 발간했다.

장애계, 제19대 대선 장애인연대 결성 장애인 정책공약 제시 및 참정권 보장 활동 중점



▲ 대선연대 조직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할 ‘대선장애인연대’가 결성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월 6일 장애계에 ‘2017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 결성을 제안하고 연대를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공약

개발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대선연대는 크게 사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동대표단 아래 사업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다시 공약개발위원회와 공약평가위원회, 참정권보장위원회로 나뉜다.

먼저 공약개발위원회는 장애인 공약을 개발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또 공약평가위원회는 대선 후

보가 장애인 공약을 반영하도록 공개질의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정당별 대선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며 장애인 유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참정권보장위원회는 장애인 참정권 개선 및 보장과 관련한 간담회, 토론회, 모니터링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선연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02-784-3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연수 개최 단체와 복지부, 상호 소통 협력 다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연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16~17일 리솜리조트

트 덕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연수’에는 장애인단

체 실무책임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연수는 장애계 이슈 및 업무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 먼저 장애인단체는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기초 연구사업 소개와 대선 장애인연대의 활동 개요 발표를 준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수립의 주요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며 평가단 구성을 소개했다.

또 권재현 국장은 대선장애인연대 참여 절차와 주요 일정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발표는 한신

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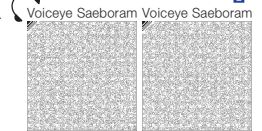
변경희 교수는 맞춤형 지원조사 개발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고려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와의 간담회에서 각 단체는 장애 유형별 현안을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단체별 의견 수렴을 약속하며 각각의 현안은 관련 부처와 논의의 이어가자고 답했다.

한편 특강으로는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진걸 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과 공익운동을 소개하며 함께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

리우패럴림픽 휠체어마라톤 메달리스트 대거 참가

정상급 선수부터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까지 축제 한마당

세계 정상급 선수들 출전 예고

새로운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의 봄, 잠실벌은 바빠진다.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우수한 선수들이 서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특히 4월은 전 세계 마라톤자들에게 바쁜 달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마라톤대회가 4월 17일 개최되는 것을 비롯해 런던마라톤대회가 4월 23일, 그리고 올해로 25회를 맞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4월 29일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마라톤대회를 메인으로 하고 휠체어마라톤 종목은 그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대회와 달리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휠체어마라톤이 메인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휠체어마라톤이 주인공인 서울대회는 세계의 우수한 선수들이 출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리우패럴림픽 휠체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마르셀 허그'는 2013년 서울대회에 출전해 세계기록에 38초 모자란 기록을 세워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는 2016년 T53 세계랭킹 3위에 오른 '페트릭 모나한'이 멀리 아일랜드에서 날아와 우승을 노린다. 또 한국에서는 리우패럴림픽 휠체어마라톤 동메달을 획득한 김규대가 정상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 밖에 T53 세계랭킹 6위에 오

른 미국의 '조수아'와 지난해 서울대회 우승을 차지한 '타나 라왓', 화려한 우승경력의 소유자 '호키노우에 코타' 등 에이스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번 대회 폴코스 및 하프코스 마라톤 참가 예정국은 스페인, 코스타리카, 일본, 태국,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가나, 중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짐바브웨, 호주, 한국 등 20여개국이다.

한국에서는 김규대 외에도 홍석만, 이봉준 등이 개최국의 자

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대회 기간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김규대 선수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유명 선수들과 참가 선수들이 함께하는 트랙훈련 시간을 마련하며 전 세계 휠체어육상 동향을 알아보는 세미나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 지난해 개최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출발 모습.



▲ 5km 경쟁부문 스타트.

스포츠 스타 이봉주, 김동성, 심권호 참여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톱클래스 선수들의 휠체어레이스 외에도 5km 경쟁(휠체어) 부문, 비경쟁인 5km 어울림 부문 경기도 펼쳐진다.

5km 경쟁 부문은 전국의 휠

체어 선수 500여명이 출전해 장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달리며 기량을 선보인다.

5km 어울림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종목이다. 장애 유무 및 나이와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따스한 봄을 맞아 몸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어울림 부문은 국민 마라톤이 이봉주 전 국가대표와 김동성·심권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참가자들과 함께 뛰며 대회를 응원한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2월 초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광환 조직위원장은 "뜨거운 가슴으로 달리는 감동의 레이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많은 분이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휠체어마라톤이란?>



휠체어마라톤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가 달린 경주용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달리는 스포츠 경기이다. 최상위권 선수들은 평지에서 20~30km/h, 내리막 길에서는 40km~50km/h의 속도로 달리며 1시간 20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다. 휠체어마라톤은 0.01초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다. 속도 조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

간에 물을 마시는 지점이 없다. 각자 휠체어에 물통을 부착하고 안전을 위해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코스는 세계 마라톤자들이 질주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로 유명하다. 2013년에는 아깝게 38초 차이로 세계신기록에 조금 못 미쳤지만, 1시간 20분 52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이때를 기점으로 신기록을 기대하는 대회로 한층 성장했다.

<대회 개요>

**SEOUL
WHEELCHAIR
MARATHON**

대회명: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기간: 2017. 4. 26(수) ~ 4. 29(토) (3박4일)

※ 출발식: 4. 29(토) 07:40~08:00 (서울잠실종합운동장)

※ 본경기: 4. 29(토) 08:00~11:00 (서울잠실종합운동장~성남 일대)

개최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참가규모: 20여개국 15000명(선수 3000명, 임원·자원봉사자 등)

대회종목: 풀(42.195km), 하프(21.0975km), 핸드사이클 하프, 5km(경쟁), 5km어울림(비경쟁)

주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협찬: 신한금융그룹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식음료: 포카리스웨트



복지부, 장애인 복지 체감도 높인다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18개 지자체 참여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3차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7. 4월 ~ 10월(6개월)
- 사업지역 : 총 18개 시·군·구(공단형 5개, 읍면동형 13개)

구분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단형(5)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읍면동형(13)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 사업대상 : 4,000명을 목표로 읍면동형은 본 사업 시 예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및 타 기관 의뢰로 참여, 공단형은 부족 인원을 추가 발굴
- 사업예산 : 50억(지자체당 서비스 및 운영비 약 8천만원)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기존 장애등급 위주로 제공돼 왔던 획일적 장애인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월 22일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장애 등급 대신 장애 특성과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판정 도구를 시범 적용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0개 지자체와 새로 추가된 8개 지자체를 포함한 총 18개 지자체가 4월부터 6개월 동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 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복지 코디가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필요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수행한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2013년 1조1천억원에서 2017년 약 2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실제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의학적 관점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당사자가 직접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기관을 찾아갈 수 없는 장애인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로 발생했다.

지난해 6월~11월 실시한 2차 시범사업에서는 4천여명을 대

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조사를 수행해 2천여명에게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현물·위생 지원 등을 제공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시범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 방침도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 >

사업 이전

20년 전 뇌졸중으로 지체 장애 1급을 받은 김모 씨는 집안에서의 일상생활도 활동 보조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이전 입주자가 휠체어가 화장실 문턱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 변기 높이가 낮아져 버렸다. 입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낮고 작은 변기에 주저앉듯이 이용해야 해서 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할 때뿐 아니라 변기를 이용할

때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었다.

사업 이후

구청과 관할 통합사례관리 팀으로부터 변기 수리지원을 받아, 더 큰 사이즈의 변기로 교체되었고 안전 보조 손잡이도 설치되었다. 또한 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동선에 따라 안전봉이 설치되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김 씨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중시설 전동휠체어 충전소 의무화 추진

김명연 의원,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공중시설에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버스터미널 및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발의

되었으며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 2204명에 이른다.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 3830명에 달해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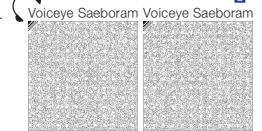
은 대부분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일부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 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되어 그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이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이룸센터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로 전환한다

국토부, 교통약자 위해 2021년까지 확충 예고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가 저상버스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 14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속·시외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각 시·도,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 팀을 운영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과 저상버스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확정·고시된 계획에 따



▲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르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열차 항공기 등은 현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90% 이상으로 향상 유지할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바꾼다.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접자블록과 같은 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교통시설물의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까지 올리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9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 밖에 휠체어 사용자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도 실시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한다. 올해에는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향후 보완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 이행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실무자 대상 '청각장애 교육' 실시

농인의 언어 존중하며 소통 노력해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장애인단체 실무

자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농인과 농 문화, 수화 사

용 에티켓 등을 숙지하고 장애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수화통역사 한은희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2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한은희 강사는 먼저 청각장애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은 청력 손실이지만 음성언어의 자연스러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한은희 강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이해하며 지원하는 소통 방법으로 △의미 있는 표정과 몸짓을 이용하기 △통역사가 있더라도 청각장애인을 바라보

며 말하기 △말할 때 입을 가리지 말기 △소통이 안 될 시 한 번 더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를 두려워 말기 등을 꼽았다.

이어서 수화통역사의 역할과 수화사용의 유의점도 설명했다.

한은희 강사는 "수화 사용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표현과 표정을 짓도록 노력하며, 농인의 언어임을 인정하고 자연적인 농식 수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이 농인과 수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소통을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테나식 흰지팡이' 무상 보급

1~2급 시각장애인 대상... 3월 10일까지 접수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9단형 안테나식 흰지팡이' 1650대를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무상 보급한다. 흰지팡이가 보급 대상은 1~2급 시각장애인이며, 복지관을 통

해 '무상 보급 받은 적이 없는 자'와 '무상 보급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2012년 이전 수령자)'이다.

신청 접수는 3월 10일까지이며 무상 보급 홈페이지(www.giboo.or.kr)에서 받는다.

보급대상은 우선순위를 토대

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우선 순위는 '무상 보급 받은 적이 없는 자'가 1순위, '무상 보급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가 2순위이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 14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

별 통지한다. 선정된 자는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흰지팡이는 3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 보급은 금호석유화학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 도민축진단, 상반기 워크숍 개최

“장애인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



▲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축진단이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축진단(이하 경기축진단)은 '2017년 도민축진단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도민축진단 요원 130명이 참가했다.

이날 김기호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에 앞장서는 한편 다가오는 대선에서 투표소의 편의시설 점검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 도민축진단 요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기도 도민축진단 운영계획 발표와 시·군지회 달성목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실태조사활동 교육과 생활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방안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강연을 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강호철 사무처장은 “장애인이 편히 이용해야 모두가 편한 시설”이라며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이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지회, 신년인사회 개최

250여명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다짐



신년을 맞아 김포시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이하 김포시지회)는 1월 23일 신년인사회 및 설맞이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계획을 설계했다.

김포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

◀ 김포시지회가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한 신년인사회는 지역 장애인 250명이 모인 가운데 김포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경규 지회장은 신년사로 “김포 지역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도록 열심히

히 뛰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이경규 지회장은 그동안 지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포상의 이정찬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컬러원코스메틱 권도봉 대표와 김포시 건설관련기업인협회의 김포시지회에 후원금품을 기증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고향식품(대표 신복순)과 이마트 김포한강점, (주)아이젠건설, 백산ENG 등이 후원했다.

문경시지회, 중국 청도 여행

임직원 37명 함께 추억 만들어



▲ 문경시지회 임직원이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왔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이하 문경시지회) 임직원이 중국 청도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문화탐방은 임직원 37명이 참가했다. 문경시지회는 장애인 편의제공, 자립지원, 인권, 민원상담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해 해

외탐방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청도맥주박물관, 천막성, 소어산, 팔대관, 5.4광장 등 많은 곳을 둘러보며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흥진 지회장은 “이번 여행을 통해 직원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군지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작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수단 확충

충청북도 진천군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생겼다.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지회장 한명수, 이하 진천군지회)는 센터를 개소하고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

위해 이동지원차량을 운영한다. 진천군지회는 2월 8일 한명수 지회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관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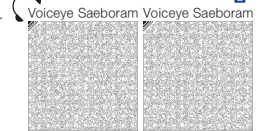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송기섭 군수는

“이번 이동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 이용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예약 및 즉시 콜방식으로 운영된다.



▲ 진천군 관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가 현관식을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지장협,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결



▲ 제주지장협이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제주지장협)가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장협은 2월 8일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 사업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협회 운영규정을 개정했

며 오형범, 고윤옥 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부형중 협회장은 “제주지장협은 회원들과 임직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도내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올 한해도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장협-안동의료원 MOU... ‘장애인 건강 증진 협력’ 약속



▲ 경북지장협과 안동의료원이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가 안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월 23일 청송 주왕산온천관광호텔 연회장에서 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진료활동 지원에 관

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북지장협과 안동의료원이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지장협 및 안동의료원 임직원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종합상담실 상담원 직무교육 실시

“지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흥수, 이하 강원지장협)가 ‘2017 제1차 장애인종합상담실 상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직무교육은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종합상담실 상담원 57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정선군 하이

캐슬리조트에서 진행했다.

먼저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은 중앙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맡았다. 그 밖에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 그리스도대학교 권진숙 교수, 대림대학교 유명이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면접, 실천방법과 양식 활용 등 교육을 진행했다.

강원지장협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상담원 역량 강화를 통해 시·군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지장협이 '2017 제1차 장애인종합상담실 상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나도 전문가

“홈패션 전문가 될래요”

포항시지회, 여성장애인 봉제 교육 스타트

포항시 여성장애인들이 봉제 전문가 교육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는 2월 1일 지회사무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봉제 교육을 시작했다.

포항시지회는 지역 여성장애인들이 홈패션 분야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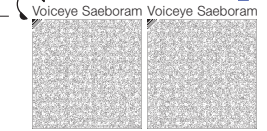
문가가 되어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주 3회로 이뤄지며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포항시지회 취업지원팀 이수정 대리는 “참가자들의 자존감 향상과 자립 의지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항시지회가 여성장애인 봉제교육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태안장복 이종만 관장, 지장협 복지관협의회회장 임명 “복지관협의회 발전과 화합 위해 노력할 것”



▲ 태안장복 이종만 관장이 지장협 복지관협의회회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복지관협의회가 새로운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종만 관장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복지관협의회장에 임명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난 2월 14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장애인복지관협

의회 관장회의에서 이종만 관장을 협의회장으로 지명했다.

이종만 신임 협의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복지관 간 네트워크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전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수탁 “지역 장애인의 행복 쉼터로 만들겠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대전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수탁법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9일 대전 동구청(구청장 한현택)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장협은 최고점인 평균 82.7을 받아 수탁법인이 됐다.

▲ 대전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조감도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은 오는 4월 공식 개관한다. 앞으로 복지관은 대전 동구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균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 준비에 돌입한 지장협 측은 “지역 장애인 복지의 구심점이자 행복 쉼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제3회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지역 장애인의 “안녕” 기원



▲ 유성장복이 제3회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병규, 이하 유성장복)은 지난 2월 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 장애인 200여명을 초대하여 펼친 이번 윷놀이 한마당은 조별 대항으로 진행됐다.

1조에 12명씩, 18조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윷놀이 대결을 펼쳤다. 서로 격려

하고 함께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 대회를 치른 결과 1~4등 조가 정해졌다. 복지관 측은 약속한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부럼을 전달했다.

유성장복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 임직원 목포장애인복지관에 초코파이 6천개 후원



▲ 롯데아울렛 남악점 임직원이 목포장복에 초코파이 6천개를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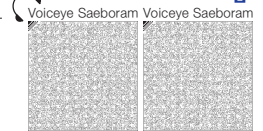
롯데아울렛 남악점(점장 김병인) 임직원들이 목포시장에 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장복)에 초코파이 6천개를 후원했다.

이들은 2월 17일 목포장복을 방문해 초코파이를 전달하면서 식사 배식 및 봄맞이 대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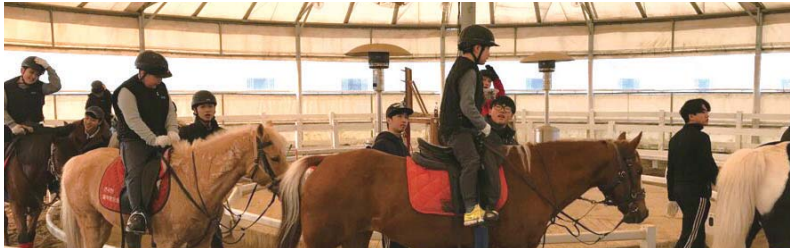
목포장복은 고마움을 표현하며 후원받은 초코파이를 지역 장애인식개선 사업 활성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복은 올해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17 장애인식개선사업 ‘장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이 사업 대상자인

목포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홍보 물품으로 초코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장복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남악점의 후원으로 이번 장애인식개선사업이 큰 활력을 얻었다”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재활승마로 몸과 마음 튼튼하게 장애아동 꿈 키우는 ‘꿈아이 스포츠교실’



▲ 아산장복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 장애아동들이 재활승마를 체험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2월 15일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인

‘꿈아이 스포츠교실’의 일환으로 승마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궁평 승마클럽에서 열린 재활승마 체험 프로그램에는 장애아동 5명

과 담당교사, 자원봉사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말에게 먹이 주기부터 시작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후 본격적인 승마 체험을 시작했다. 아

이들은 전문가의 안내로 천천히 평보로 걷다 속보로 걷는 등 리듬 있게 승마를 체험했다.

참여 아동 보호자 이모 씨는 “평소 좋아하던 말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타며 아이가 즐거워했다”며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며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산장복은 장애아동의 신체 능력 개발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 ‘꿈아이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꿈아이 스포츠교실은 매주 수

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도고글로리 수영장, 이순신 빙상장, 순천향대학교 대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지역사회체육시설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초체력운동과 근력운동, 스트레칭, 수영교실, 스케이트교실, 실내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실시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다.

꿈아이 스포츠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장복 문화체육지원팀 최진영 생활체육교사(041-545-7710, 7727)에게 하면 된다.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제3회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만, 이하 태안장복)이 제3회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이용객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제 주제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장애청소년들이 1년간 준비해서 직접 만든 작품을 상영했다.

각각의 영화에는 장애청소년

이 바라본 세상이 다양하게 담겨 있었다. 영화제 관람객들은 그들의 삶과 소망을 다룬 영화를 잔잔하게 감상했다.

영화를 감상한 이모 씨는 “비장애인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다”며 “영화를 통해 장애청소년

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영화제 담당자인 태안장복 가민선 팀장은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며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

다”며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 작품을 완성한 참가자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인권강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용인치인장애인복지관 2017년 사업설명회 실시



▲ 용인치인장복에서 2017년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치인장복)이 2017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2월 8일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을 포함한 100여명이 보였다.

치인장복 측은 복지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도 신규 사업과 특화사업 및 주요 프

로그램을 홍보했다. 또 대상별 치료 및 프로그램을 안내한 후 신청접수를 받았다.

현재 치인장복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프로그램 이용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eart4u.or.kr>) 또는 유선 전화(031-320-4800)로 문의하면 된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정(情) 나눠 김천시목요회, 김천장복에 나눔밥상 후원



▲ 김천시 목요회가 김천장복에 나눔밥상을 후원했다.

김천시목요회(회장 박보생)가 김천시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나눔밥상을 후원했다.

김천시목요회는 김천 지역 32개 기관 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2월 16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을 찾아 회의 진행 후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했다.

이날 음식은 김천경찰서 전경어머니회가 마련했으며 김천시목요회 회원들이 배식을 맡았다. 회원들은 배식을 하는 동안 복지관 이용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김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생필품도 전달했다. 김천장복 측은 후원받은 생필품을 지역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 30곳에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아 윷놀이 한마당 개최 지역 장애인과 지역주민 화합의 장 열려



서울 북부 지역에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윷놀이를 하며 건강과 화합을 기원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북부장복)은 2월 10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복지관 이용 고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 북부장복이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기원했다.

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윷놀이 한마당은 높은 참여 열기 속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김모 씨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윷놀이를 즐겼다”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흥겹게 마을잔치를 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윷놀이 경기 후에는 부럼 깨기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1년 동안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했다.

행사를 마친한 북부장복 손영호 관장은 “윷놀이 한마당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정월대보름의 따스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광의료재단, 괴산장복에 5백만원 후원 괴산장복-괴산성모병원 MOU... 장애인 복지 발전 맞손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이하 괴산장복)과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15일 열린 협약식에

◀ 대광의료재단이 괴산장복에 5백만원을 후원하고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협약을 맺었다.

서 대광의료재단(이사장 나숙연)은 병원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괴산장복과 괴산군 장애인연합회에 각각 5백만원을 후원했다.

대광의료재단 나숙연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 장애인

인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고마움을 표현하며 “후원금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따끈한 사골 떡국 최고예요”

규암면여성농업경영인회 떡국 나눔



▲ 규암면여성농업경영인회가 부여장복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규암면여성농업경영인회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여장복) 이용 장애인들에게 따끈한 사골 떡국을 나눴다.

2월 22일 규암면여성농업경영인회 회원 10여명은 부여장복을 찾아 직접 떡국 200인분을 만들었다. 이들은 떡국과 함께 준비한 과일, 떡, 음료 등을 장

애인 고객들에게 배식하며 정을 나눴다. 적은 봉사 인원으로는 벽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봉사활동에서 체득한 노력함으로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부여장복 정도기 관장은 “따뜻한 봉사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규암면여성농업경영인회에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규암면여성농업경영인회 한선옥 회장은 “맛있게 잘 먹었다고 수줍게 말하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따뜻한 선물을 받아간다”며 앞으로도 나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과 정성 담긴 ‘고추장 담그기’

고추장, 재가 장애인 50가구에 전달 예정



▲ 장성장복이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성장복)이 지역 재가 장애인을 위해 고추장을 담갔다.

복지관은 지난 2월 24일 ‘사랑 가득, 정성 가득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부인회 회원들과 함께 전통방식으로 고추장을 만들었다.

복지관은 이날 만든 고추장을 지역 재가 장애인 50가구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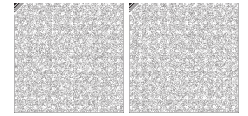
장성장복 이대원 관장은 “행사명처럼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고추장을 만들었다”며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이 식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장성푸드뱅크에서 후원한 건고추와 대영전자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후원금을 받아 마련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Smart AAC' 출시

중증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애플리케이션 개발



▲ Smart AAC 화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삼성전자가 중증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정식 출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Smart AAC는 문자형, 특수 키보드, 그림형, 상징 제작 앱 등 총 4종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Smart AAC 문자형

Smart AAC 문자형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자를 입력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대화 모드와 발표나 강연 등 장문의 글을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는 문서 모드로 구분되며, 적극적인 대화 개시를 위한 끼어들기 기능도 제공한다. 이전에 사용한 문장들을 볼 수 있어 자주 하는 말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Smart AAC 특수 키보드

Smart AAC 키보드를 함께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문자 상징이나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단어 예측 기능으로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키보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채팅 앱이나 인터넷, 문서 작성 등의 문자를 입력하는 다른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 범위를 넓혔다.

Smart AAC 그림형

Smart AAC 그림형은 글자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가고 있는 사용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에 해당하는 그림(상징)을 선택하면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은 하나 또는 그 이

상으로 선택하여 문장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의 의미하는 말을 사용자가 쉽게 편집 가능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만든 상징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Smart AAC 상징 제작 앱

그동안 그림형 AAC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자나 교사 및 치료사들이 앱 사용 교육과 어휘 학습을 위한 상징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징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Smart AAC 상징 제작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화 향상됐다 미래부, 2016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향상됐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전년 대비 6.2%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부문 별로 살펴보면, 디지털접근수준(84.5%)은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15.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역량수준(45.2%)과 디지털활용수준(59%)은 격차가 각각 54.8%, 4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디지털접근수준은 10.8%, 디지털역량수준은 7.8%, 디지털활용수준은 7.4% 상승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77.3%)은 일반국민과

의 격차가 22.7%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65.4%), 농어민(61.1%), 장노년층(54%) 격차는 각각 34.6%, 38.9%, 4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저소득층은 2.8%, 장애인은 2.9%, 농어민은 5.9%, 장노년층은 8.4%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활용 교육 확대 등으로 디지털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하지만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디지털역량 수준 개선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7 성인장애인 맞춤형 정형신발 지원사업

지원항목

맞춤형 정형신발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성인장애인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한도 현물지원

신청기간

2017년 2월 20일(월) ~ 4월 5일(수)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나눔알리미 게시판 참조

참고

신청 후 정형신발 지원을 위해
제작업체에 대상자가 4회 이상 방문할 수 있어야 함

• 나눔사업 지원시기는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 나눔알리미 참조
(www.purme.org)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눔사업팀 02)6395-7001

03032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 88 (신교동66)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www.purme.org



SAMSUNG의 이웃사랑 성공으로 사회적기업도공로가 지원됩니다.



신년인사회 전경.

| 포토리뷰 |

2017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신년사.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축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부회장의 대회 선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및 17개 시·도협회 기수단 입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



주요 내빈의 케이크커팅.



2017년 정기대의원 총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특강.



이종성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현판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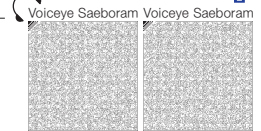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이광영 과장의 특강.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특강을 듣고 있다.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사회를 본 개그맨 김중국.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서울 종합우승... MVP 휠체어컬링 서울팀 선정

2018 평창패럴림픽 활약 예고

미리 보는 패럴림픽대회로 화제를 모았던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서울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강원도 및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펼쳐진 대회 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2위에 올랐고 3위는 강원이 차지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 휠체어컬링에서는 8전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한 서울이 경기도를 7대 4로 제압하며 9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서울 휠체어컬링팀은 MVP에도 오르는 기쁨을 안았다.

서울 휠체어컬링팀은 지난 2016년 9월 창단한 서울시청 실



▲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서울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업팀이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백종철 감독, 서순석, 민병석, 방민자, 차재관 선수 5명과 양희태 선수로 구성됐다.

알파인스키에서는 2관왕이 6명이나 배출됐다. 국가대표인

양재림 (28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여자 대회전 시가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2관왕에 올랐다. 다른 국가대표인 이치원 (37세, 하이원)도 회전 종목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남자 대회

전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이 됐다.

남자 임식 부문에서는 경기의 김흥빈(53세), 여자 청각 부문에서는 울산의 김미연(20세), 남자 시가 부문에서는 황민규

(21세)가 2관왕에 등극했다. 동호인부에서는 여자 지적 부문 최영미(16세)가 2관왕에 올랐다.

폐회식은 10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포레스트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주요 내빈과 선수 및 임원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해 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체육의 희망을 보았다”며 “다가오는 2018 평창패럴림픽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무료 책배달 ‘책나라’ 2배 확대 장애인 1~5급, 장기요양 등급자 등 123만명 추가 혜택



▲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한 무료 우편서비스 ‘책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배달 서비스인 ‘책나라’ 지원 대상이 2배로 확대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2월 1일 기준 128만 명에서 251만명으로 확대하고 책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책나라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자는 거주지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과 책나라 누리집(<http://cn.nl.g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료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으로 배달된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 1~6급, 시각 외 등 록 장애인 1~3급, 장기요양 등급자 1~2등급,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등 128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책나라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등록 장애인 1~5급, 장기요양 등급자 1~5등급 및 국가유공상이자 1~5급까지 123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책나라 누리집의 기능을 개선해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이중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서 보조기기 지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체자료 제작·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장북 볼링선수 5명 (주)한샘 입단 “프로 선수로 운동에 전념할 것”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최미정 씨는 볼링장에서 열심히 훈련하다 서둘러 정리를 한다. 함께 운동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정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옆 라인에서 여전히 훈련 중인 비장애인 실업팀 선수들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 중 1.6%만 실업팀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이 심각한 탓에 장애인 선수들은 다른 직업과 운동

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성남시장에 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북)이 지원하는 전문 선수 중 볼링선수 5명이 (주)한샘 실업팀에 입단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간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한샘의 실업팀 창단을 주선하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한샘에 입단한 최미정 씨는 “기준에 복지관과 시체

육회의 지원을 받았지만 생계 활동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운동시간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수들은 입단계약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했고 소정의 생활비와 훈련비용도 제공받아 한층 안정적인 환경을 얻게 됐다.

그동안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해 온 성남장북 측은 입단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한샘에 입단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하버드대, 보행도우미 '엑소슈트' 개발 뇌졸중 장애인 보행 지원 등에 활용



걷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 주는 장치가 개발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코너 월쉬 교수팀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엑소슈트(Exosuit)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의 웨어러블 방식 외골격 로봇은 딱딱한 금속성 소재로 만들어졌고 배터리를 짊어줘야 해서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보행 훈련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동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스러운 보행 동작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 엑소슈트는 발목 부위와 배 부분에 벨트처럼 착용하는 제품이다. 자연스러운 보행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허리 부위에 차는 웨이트 벨트, 발목 근처에 차는 종아리용 스트랩,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연결해주는 끈 4개로 이뤄져 있다. 이를 착용하고 걸으면 발의 동작과 에너지가 끈을 통해 고관절까지 전달된다.

연구진이 실험자 7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보행 시 에

너지 소비량이 최대 23%까지 감소했다. 연구진은 지금껏 보고된 임는 로봇 중 엑소슈트의 에너지 감소량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향후 엑소슈트는 뇌졸중, 파킨슨병,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무거운 장비를 메는 소방관, 장거리를 이동하는 군인 등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로봇 전문 저널인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실렸다.

◀ 코너 월쉬 미국 하버드대 교수팀이 개발한 엑소슈트. ©Harvard Biodesign Lab

영국에서 장애인 최초로 상업 모델로 데뷔한 13살 소녀가 화제다.

영국 일간지 '미러(mirror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업 모델계 장애인 여성을 프로 모델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주인공인 이사벨라 네빌은 최근 모델 에이전시 '소스 모델'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소스 모델 측은 "이사벨라가 상업적으로 매우 인기를 끌 만한 외모를 지녔을 뿐 아니라 본인의 장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매력적인 요소로

뇌성마비 소녀, 프로 모델 데뷔 영국 상업 모델계 최초로 장애인 여성 발탁

다가왔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출신의 전직 프로 축구선수 필 네빌의 딸이기도 한 이사벨라는 출산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났다. 그 때문에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으며 생후 18개월 만에 뇌발작으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이사벨라가 앞



으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사벨라는 그들의 예상보다 강하게 자라났다. 지난 10년간 힘든 보행 재활치료와 언어치료를 견뎌냈고 현재 보조기구 없

◀ 뇌성마비 장애인 모델 이사벨라. ©mirror online

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힘겨워하는 딸에게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매일 응원했다"고 말했다.

눈물겨운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한 이사벨라의 소망은 "장애인으로서의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자신을 대해 주는 것"이다.

기사를 본 영국인들은 "(보그) 표지 모델로 보기를 바란다(Gadget)" "사랑스러운 모델(Amanda Stuart Kuy)이다"라며 그녀의 소망을 응원했다.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로봇 팔을 미국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장애 아동에게 선물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올랜도 센티넬(Orlando Sentinel)' 등은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대학 공과대 학생들이 팔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로봇 팔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봇 팔은 개인이 제작하려면 5천만원에 육박하지만 학생들은 연구실 재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50만원 정도에 제작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일회성 선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

"로봇 팔이 생겼어요" 대학생 봉사단체, 팔 없는 장애 아동에 선물



위해 'Limbless Solutions'라는 NGO까지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장애 아동 20명에게 로봇 팔을 선물했다.

Limbless 측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애를 견디며 지나야 했던 6살배기 알렉스 핑(Alex Ping)의 팔을 만들어 준 뒤 보람을 느꼈다"면서 "지속적

◀ 대학생 봉사단체가 장애 아동에 로봇 팔을 선물했다. ©Orlando Sentinel

인 후원을 결심한 후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장애 아동이 로봇 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70개국의 대학생과 제조회사를 공유하고 있다.

또 학생들은 시리아 분쟁에서 팔다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Limbless CEO인 알버트 마네로는 "장애를 겪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역량을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

전국 18개 지사 확대 운영...3천명 혜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이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장애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공단, 서울, 부산, 대구 등 13개 지사에서 수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울산, 경북, 전남, 충남, 제주 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 18개 지사에서 모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원거리 서비스 대상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특수학교와 사업 연계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장애학생이 향후 노동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2·3학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이다.

공단은 2013년부터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9천명이 넘는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2016년에는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2015년 92.1점 대비 2.2점 상승한 94.3점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바 있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시행 후 4년 만에 장애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국 지사로 확대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학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단 18개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한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을 잡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주거환경 전문기업 한샘과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모기업 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한 경우 모기업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양 기관은 2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샘 사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규 공단 이사장과 이영식 한샘 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샘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샘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립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Seoul Northern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공드레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의 삶과 희망을 생산합니다

[http:// www.workvision.or.kr](http://www.workvision.or.kr)
서울시 노원구 상계 67동 771번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깨끗함을!

견적문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후 견적
(현장실사)

계약체결

청소서비스진행
(현장투입)

깨끗한환경
지속관리



바닥광택기



계단청소기



진공청소기



바닥세척기

방역사업

안전한 환경을
지켜드립니다.

GO



임가공사사업

올거운 일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GO



청소사업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GO



직업적응훈련

신나는 능력개발.

GO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02-2092-1791~5



기고

우수 사업 소개

서울시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동식 다장애 체험관 운영



▲ 2016년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 참가해 BF(Barrier-Free)관을 운영했다.



▲ 참가자에게 휠체어 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희망나루>

- ◆ 2012 : 희망나루 체험행사가 처음 진행된 해 영등포구청에서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체험을 진행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이후 영등포구에서는 매년 4월 장애인의 날 전후로 개최하고 있다.
- ◆ 20대 : 희망나루 장애체험행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대이다. 중앙대, 숭실대, 명지대, 건국대, 한성대, 한양대, 총신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체험을 개최해 많은 학생이 참여했다. 해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기획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다.
- ◆ 불편해요 :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환경을 체험한 참가자들의 공통 의견은 “불편하다”였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채로 휠체어를 타고 불편절한 접자가 새겨진 알 수 없는 음료를 마셔야 했다. 또 마구 떨어지는 손으로 물건을 집어야 하는 일상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 장애유형? : 알고 있는 장애유형을 묻는 설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지체, 시각, 청각, 정신, 뇌병변 순서였다. 그 외의 장애유형은 모르거나 ‘정신지체’처럼 명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 유형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 장애인=도움 : 장애인을 단순히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던 기존 개념과 달리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 다각적인 의견이 나왔다. 또 장애인을 ‘나와 다르지 않은 동등한 사람으로 보아야겠다’고 답한 참가자들도 다수 있었다. ‘장애인=도움’이라는 기존의 반응에서 ‘장애인=차이가 없는 동등한 사람’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함을 잘 보여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 다리 ‘희망나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센터장 손영호, 이하 서울센터)와 산하 25개 구센터는 이동식 장애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 체험관의 이름은 ‘너를 알려주고 나를 보여주는 희망나루’로 해마다 서울 각지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 관련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와 승강기그림 등을 통과하는 지체장애 체험부터 시작해 안대를 착용한 채 흰 지팡이를 이용해 점자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체험으로 이어진다. 또 그대로 눈을 가린 채 그림을 그리거나 음료를 알아맞히는 체험도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저주파치료를 붙인 채 블록 쌓기를 하는 편마비 체험까지 진행된다. 시작과 끝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설정되어 순서대로 체험할 수 있다.

광진구센터 이외에도 영등포구, 노원구, 서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성동구센터 등 다양한 지역센터가 지하철, 영화관, 백화점, 대학교 등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수많은 시민을 만났다.

2016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

육 프로그램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희망나루 같은 체계적 체험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희망나루는 장애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도 체험을 통해 절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자의 능동적 참여 돋보여

희망나루 체험 중 가장 크게 진행한 행사는 ‘2012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였다. 이 행사에서 희망나루 체험팀은 국내외 다양한 사람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 안내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열띤 참여로 행사 기간 총 4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를 거듭할수록 희망나루 체험팀의 숙련된 진행방식이 빛을 발했다. 다양한 노하우도 덧붙여 체험의 재미를 더했다.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돕는 경우도 많았다. 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나 복지 관련 학과, 자원봉

사 동아리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은 팔목할 만한 성장으로 꼽힌다. 희망나루는 일반적인 취업식 교육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여러 장애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은 타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확연히 다른 차별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각·정신 등 장애유형 연구 필요

희망나루 장애체험은 청각장애, 정신장애 등 다른 장애유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 부족,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미처 개발하지 못한 다른 장애유형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참가자들이 많다. 더욱 활발한 교육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센터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예산 확보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체험 방법을 개발하여 편의시설 지원센터만의 독자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장애인식개선 사업 분야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나가기 기대한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울광진구지원센터
고은정 주임





쉽게보는 피해사례 권리구제체계

사례를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방법 알아보기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융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성철 과장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정책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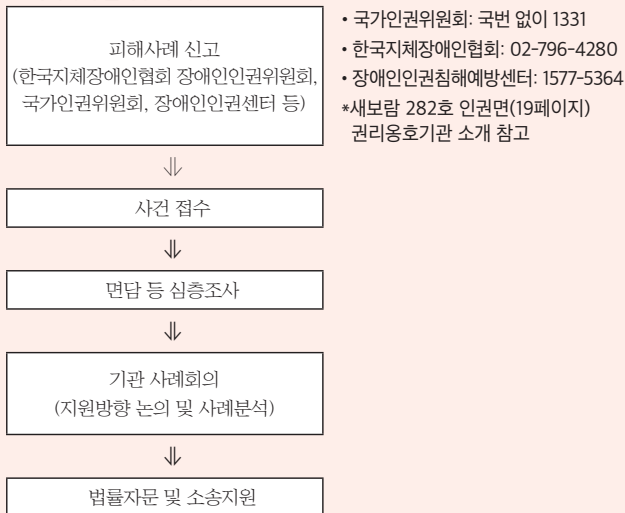
사례 1

가출한 지적장애 1급 김모 씨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김 씨를 데리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폰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김 씨가 구입한 휴대폰은 노숙인들이 가져가서 팔거나 사용했다. 이에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이 미납되어 통신사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례 2

손모 씨는 지적장애 3급인 임모 씨의 신분증을 임의로 도용하는 것뿐 아니라 동행하여 신용카드까지 개설했다. 손 씨는 임 씨의 카드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임 씨에게 채무 5천만원이 발생했다.

◆ 피해사례 권리구제 체계



◆ 권리구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사례 1

사건을 접수한 권리옹호기관은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이동통신사는 원고가 성인이고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을 근거로 계약 유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지능지수 35 미만의 지적 1급 장애인이며 가출해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다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각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례 2

사건을 접수한 권리옹호기관은 카드사와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와 대부업체가 임 씨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장애인 권리교육 필요

위의 사례는 재판부에서 지적장애인의 계약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금융피해 소송에서 모두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지적장애인이 휴대폰 가입 시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및 센터에서 휴대폰 개설 방법 및 신분증,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함부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사례 속 법률정보>

채무부존재

채권채무 약정이란 기존의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 계약으로서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채권채무확인서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다 상환하였거나 전혀 금액을 빌리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본인의 인적 정보와 더불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가사소송·특허심판·정당 해산 등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로 진행되는 절차 형태를 취한다. 그 절차의 안정·공정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

원고 및 피고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인다. 원고의 반대 개념은 피고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급부 소송에서 원고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부여할 급부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 즉 채무자이다. 원고는 소송당사자가 되며,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소송 절차-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는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및 부수절차로 나누어진다. 보통절차는 다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지며, 판결절차는 제1심·항소심·상고심·항고심·재심절차로 세분된다. 강제집행절차는 그 채권의 종류와 집행목적물에 따라 나뉜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원고의 소의 제기절차로부터 시작되고, 변론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입증·부인·항변·증거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이다. ①특별절차에는 제소 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과산절차가 있다. ②부수절차에는 소송비용 확정절차, 증거보전절차, 집행부 부여절차, 가압류절차, 가처분절차가 있다.





김홍빈 팬 카페(김홍빈과 희망 만들기): cafe.daum.net/kimhongbin
 페이스북: facebook.com/hongbink
 홈페이지: http://www.kimhongbin.com



▲ 히말라야의 고봉 캠프출가를 등장했다.

불가능에 도전하다

전 세계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중 최초로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53) 대장이 또 한 번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 김 대장은 오는 3월 상이군경 출신 나정희 씨, 왼쪽 팔이 없는 이진기 씨, 몸 왼쪽이

마비된 정영웅 씨와 함께 세계 4위 고봉 히말라야 로체(8516m) 원정에 나선다.

김 대장은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도전은 더 이상 도전이라 부르지 않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도전”이라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 움켜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열 손가락이 다 있는 비장애인도 8000m 등정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김 대장은 비록 손가락은 없지만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손가락 없이도 고산을 걷고 기며 때로는 굴렀다. 몇 번의 죽을 고비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 최초로 14좌 완등을 향해

김홍빈 대장은 대학 시절 잘 나가는 스포츠맨이었다. 산악부에 들어가 2학년 때 광주전남암벽대회에 출전해 2위에 올랐다. 1989년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과 1990년 대한산악연맹의 낭가파르бат 원정에도 참가했다. 고산 훈련의 일환으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시작해 1989년부터 동계 전국체전 노르딕, 바이애슬론 등에서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도유망한 산악인이었다.

그러나 시련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켄리봉을 단독 등반하다 사고로 열 손가락을 잃은 것이다. 혼자 옷을 입을 수도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다. 세상을 등질 생각도 수차례 했지만 동료 산악인들의 도움으로 일어서 다시 산에 올랐다.

“백만 보고 한탄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사람이 살다가 다칠 수도 있죠. 산이 제게 잘못된 것도, 제가 산에 잘못된 것도 없는 걸요. 손가락이 없어져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진짜 도전이죠”

산악인 김홍빈, 세계 최초 장애인 14좌 완등을 향해

산에서 손가락 열 개를 모두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산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는 ‘희망의 아이콘’.

산악인 김홍빈을 만나 꿈과 도전의 이야기를 들었다.

삶의 영역이 좁아지긴 했지만 남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사는 구나. 장애를 스승으로 여기고 잘 살아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비장애 산악인들도 하기 어려운 7대륙 최고봉 등정이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아시아)를 비롯해 아콩카과(남미), 매켄리(북미), 킬리만자로(아프리카), 엘브루즈(유럽), 칼스텐즈(오세아니아), 빈슨매시프(남극) 모두 오르겠다는 계획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비수를 쏘았지만 김홍빈 대장은 빗방울 가로 지르고 설벽을 넘어서며 목표를 달성해갔다. 마침내 그는 2009년 꿈을 이뤘다.

7대륙 최고봉 완등 후 김 대장은 더 큰 꿈을 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홍길, 박영석, 한상용, 오은선 씨가 해낸 8000m급 14개 거봉 완등이다. 차례차례 발자국을 찍어 9개 등정에 성공한 그는 환갑까지 해낸다는 결심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알파인스키 회전, 대회전 종목에 출전했다.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수준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출전 자격도 획득해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패럴림픽에 이어 2번째로 출전할 예정이다.

장애산악인 동계와 복귀 프로그램 필요

7대륙 등정과 14좌 중 9좌를 등정했으며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가 아닌 무관심이었다. 산악계에서도, 장애계에서도 장애산악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 다시피 했다. 산에서 사망한 사람의 통계는 있어도 부상자 통계는 없다. 따라

서 부상자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장애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복귀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무하다. 김홍빈 대장은 이를 아쉬워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쳐요. 산에서도 우직하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다 열심히 살다 다치는 건데 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장애계와 산악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통계와 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교실 열고파

김 대장은 큰 부상을 입고 산으로 복귀한 선배로서 후배 산악인에게 자신이 극복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하는 히말라야 등반교실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히말라야는 산악인들이 “꼭 한 번 가봐야 할 꿈의 길”이라고 손꼽는 곳이다.

그의 계획을 들으면 대부분 “비장애인은 오르기 힘든 히말라야를 어떻게 장애인들이 올라가느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김 대장은 오히려 쉽다고 말한다.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순리대로만 오르

면 된다는 것이다. 체력을 기르고 자신에게 맞는 장비와 음식을 잘 준비한 후 안내자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걷기엔 답답할 수 있는 길이다.

기압이 높아 산소가 희박하기에 천천히 걸으며 인내를 배울 수 있다. 또 거대한 자연 앞에 저절로 겸손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편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장애 유형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고, 체계적 훈련을 통해 준비하면 안전한 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장애인의 히말라야 원정이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한다.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혀 나가지 못하거나 세상 살이에 지쳐 꿈을 잃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언어를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

언어를 바꾸면

불편한 기억...

장애 관련 부정적 용어들

필자는 5년 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닌 적이 있었다. 교육에 앞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만화동영상 및 교육내용을 검토한 후 교실에 들어서면 총총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망울보다는 시골벽적인 교실이 눈에 앞에 있었다.

교육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닌 낯선 필자를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나 궁금한 듯 눈망울을 굴렸다. 아이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고민하며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나쁜 언어들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바보, 장님...’과 같은 부정적 용어 앞에 아이들이 박장대소하는 것을 늘 경험했다.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정치권이나 방송 등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발언을 경험해왔다.

그 사례로 ○○의원은 “눈이 비뚤어졌는데 무엇인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라고 발언해 장애인단체들이 나서 인권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다.

또 ○○시장은 자신의 SNS에 “수준 낮은 일에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되는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후 급히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표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나운서는 한자 문제에 오답을 말한 후 ‘나는 한자 장애인이었다’고 표현했다.

왜 모르는 걸 장애인이라고 했을까? 지적 수준이 높아 보이는 아나운서마저도 평소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룹의 ○회장은 어느 토론회에서 “장애인이 맛있는 빵을 만들면,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발언한 적이 있다. 왜 하필 ‘장애인’이 만드는 맛있는 빵을 예로 들었을까? 말로는 사회 가치를 운운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



▲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본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다.



▲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글에는 많은 사람이 동전을 넣었다. ©purplefeather

이후 장애인 단체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장은 “매년 장애인들에게 쌀 기증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평소 ○회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사회공

헌활동, 경제·사회발전 기여,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말이라는 하나 토론회장에서 상기와 같이 발언한 것을 보면 빈말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단체의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에는 “친절은 장님도 볼 수 있고 병아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반인권적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행복한 기억...

에너지를 주는 용어들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았다. 영국의 한 커피라이팅 업체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단순하지만 깊은 여운을 준다.

「길에서 한사람이 동전통을 놓고 구걸하고 있다. 그 옆에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쓰여 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러자 지나가던 한 여인이 어떤 글을 써 주었다. 그 사이 시각 장애인은 그 여인의 구두코를 만져 본다. 그 후로 동전이 쌓여 동전통이 묵직해졌다. 다시 찾은 여인... 시각 장애인은 구두코를 만져보며 그 여인임을 알고 묻는다. 어떤 글을 썼느냐고. 그 글에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2014년에 ○○단체에서 병어리장갑에 새 이름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동안 무심코 써 온 ‘병어리장갑’이라는 용어 때문에 청각장애 장애인들은 겨울철만 되면 슬프다고 한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병어리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손모아 장갑’으로 바꿔 모두가 행복해지는 장애인 인권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언어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천 년 빛을 갈을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여러 의미로 다가온다.

‘사랑, 처음, 행복, 희망, 집, 안락함...’이라는 단어는 듣는 이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바보, 멍청이, 장님, 병어리...’ 이러한 단어는 듣는 장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인생 전체에 걸쳐 마이너스를 주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언어를 바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도록 표현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송경주 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 보 란 제283호 2017년 3월 3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인호 기자 / 오창석, 이정희 디자인 / 이희진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장애인 자살 예방’ 무엇이 필요한가?

장애인 약 20%가 자살 생각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은 2010년에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급속히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최근 들어 장애인 및 가족의 자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 조사 후 청각장애인의 자살(2014년 5월)부터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언니를 부양해야 하는 여동생의 자살(2015년 1월), 아버지가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2015년 4월)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19.9%의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장애인 4.6%보다 5배 가까이 높아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를 발간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적 문제 가장 커

장애인의 자살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실정이다. 자살 원인을 분석한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우울감, 상실감, 고립감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 상하이에서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장애가 있을 경우 자살시도율이 높았으며, 여러 유형에

자살의 원인	장애인 자살	장애인 가족 자살	계
만성적 빈곤, 직장문제	10	16	26
외로움, 고독, 정신과적 증상	1	2	3
불합리한 제도문제	5	1	6
신병 비판	8	2	10
계	24	21	45

▲ 자살의 원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유형	장애인 자살	장애인 가족 자살	계
지체장애	9	5	14
발달장애(지적·정신)	4	9	13
시각장애	3	2	5
청각장애	2	0	2
뇌병변장애	4	3	7
언어장애	1	0	1
간질장애	1	0	1
중복장애	0	2	2
계	24	21	45

▲ 장애 유형별 자살 사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 장애가 중복지수될수록 자살시도율이 3~5배가량 높아졌다. 그 밖에 스웨덴에서는 자살시도율이 높았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받게 된 후 자살시도율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이번 ‘장애인 자살 예방’ 연구진은 부족한 국내 사례연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자살 관련 신문 기사를 분석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네이버를 통해 검색된 장애인 자살 사례는 24건이며 장애인 가족 자살 사례는 21건이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지체장애인의 분신자살, 외로움을 호소한 언어장애인의 자살, 성추행을 당한 발달장애인의 자살, 발달장애 아동을 둔 일가족의 동반자살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전체 사례 45건을 장애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지체장애인의 자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13건, 시각장애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살 원인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병 비판이 10건, 불합리한 제도문제가 6건, 외로움이 2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또 대중매체들이 장애인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중매체들은 우울증 혹은 기타 정신장애 등과 같은 ‘단순한 장애로 인한 자살 사건 발생’이라는 형태로 보도하거나

자극적인 묘사로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다분했다.

이에 대중매체는 장애로 인한 일차적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인 원인을 파악해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나 당사자들이 미디어 감시단을 구성해 부적절한 보도를 개선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서적 지원과 원활한 사회활동 유도

연구에서는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한 예방책이다. 이에 따르면 독거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연락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활동보조인, 의료진, 복지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전문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둘째, 직업 활동 및 사회생활을 통한 자살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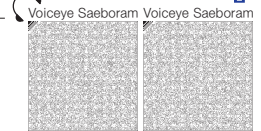
다. 직업재활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심리적 부적응을 최소화하는 예방법에 해당한다. 직업 활동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를 대신할 사회활동을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평생 교육 시설을 확대해 가족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제도 개선을 통한 자살 예방도 필수이다. 먼저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본인 소득에 기초해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천편일률적인 활동보조 급여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의 양, 적절한 수가 선정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도 장애인에게 새로운 학업의 기회와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갖춰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연구결과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 서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책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계 인사이트

농산어촌 장애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 접근성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등 모든 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또한 협약 이행상황을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농산어촌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어떤가? 농산어촌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넓은 군이 45개군으로 전체 군 지역의 50%를 넘는다. 이렇듯 광범위함에도 이동권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대도시엔 인접한 극히 일부 군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다. 저상버스의 경우 한 대도 없는 군 지역도 많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운송수단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 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는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원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제25조에는 주목할 조항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농산어촌지역의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병·의원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면은 물론 읍에서도 찾기 어렵다. 안과, 재활의학과와 이비인

후과 등과 같은 전문병원도 없는 지역도 많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산어촌지역 병·의원은 경제성을 이유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응급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농산어촌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적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응급의료 관련 농촌영향평가를 한 결과 단위면적 10제곱킬로미터 당 구급차 수가 농산어촌지역은 0.1대에도 못 미쳤다. 반면 대도시는 1.5대로 나타나 15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응급의료에서 소외된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은 사고 시 빠른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애인 주민의 경우에는 전문병원 부

족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 악화나 장애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은 각 지역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획일적이다.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농산어촌지역 장애인의 삶은 갈수록 소외되고 피해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제도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길 관장



Quiz

01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날짜는?

02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8000m 14와 완등에 도전하는 산악인은 누구인가?

0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news@kappd.or.kr)

독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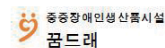
“장애인 접근 가능한 관광지원 탐방”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누구에게나 여행이 즐거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럽고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광지원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노재희

신문 디자인을 예쁘게 바꾸고 전체 컬러로 만드니 읽기 편하네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새보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미순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권익옹호

당첨자 부산 부산진구 노재희
대구 서구 전미순
경기 수원시 김승훈



http://www.gabrielcenter.or.kr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넣어드립니다.
밍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주문제작)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라길 04-12
가브리엘작업장 Fax. 02.951.9708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Tel. 02.951.9707



복지마당

정직한 리더가 필요하다

한때 가장 선호했던 가훈 중 하나가 “정직”이었던 적이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장 나쁜 행위라며 정직하라고 가르쳤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학생에게 항상 정직하라는 말을 했다. 친구 사이에서도 정직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이다. 우리는 정직을 사람이 늘 마땅히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며 실천하기를 원한다.

작금의 탄핵정국에서 온갖 의혹과 시시비비가 난무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정직을 볼 수 없다. 누구의 말이든 어떤 조사든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의혹과 문제 제기를 동반하며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다.

《논어》에는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현재의 국정 불안 사태를 함축하는 말이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직한 리더의 부재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가져왔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직한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일은 국민의 몫이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조직의 리더가 주목해야 할 주요 덕목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배려, 정직, 절제, 겸손, 용기가 그것이다. 먼저 배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며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정직은 실력을 통한 정정당당함이다. 정직한 리더는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도록 만든다. 반면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는 리

더가 되기 힘들다.

절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리더는 권위를 내려놓고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겸손은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항상 배우며 더 나아지려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변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장 이익이나 주위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신념으로 굽히지 않는 용기, 부당한 유흥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부하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애인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장도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장애인단체의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사회인식을 개선해 장

애인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는 단순히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닌 장애인복지와 장애인권익을 대변하여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숭고한 뜻을 지닌 단체이다. 그렇기에 정직이야말로 장애인단체장이 먼저 지녀야 할 리더의 덕목이며 장애인단체의 실천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에게

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자조단체로서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향상을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온 지장협이기에 중앙회장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할 것이다.

어느 조직이건 리더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 책임이 두렵다면 리더가 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을 이겨내고 엄격한 도덕성을 가진 정직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도 진일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일 것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리더스토리

제주 장애인 체육 발전을 희망하며

지난날 제주도는 장애인스포츠클럽이나 다름없었다. 제주에서 장애인 전문 체육을 활성화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장애 유형별로 체계적인 운동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타 시·도에 비해 조직도 지원도 부재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예전에는 ‘장애인 운동’을 재활운동 정도로 여기는 세태였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장애인들도 전문체육을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된 것이다. 제주의 장애인들 역시 2007년 4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스포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협회는 1986년 제주도 최초로 장애인게이트볼팀을 창단한 바 있다. 건전한 여가 활동은 물론 제주도 장애인게이트볼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게이트볼 경기는 한 팀당 선수 5명과 후보 3명까지 둘 수 있다. 각 팀은 주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진행한다. 30분 동안 경기를 치러 누가 점수를 많이 내느냐로 승부를 가른다.

제주 협회는 이 외에도 1998년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하며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해왔다. 농구단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높은 실력을 입증했다.

또 제주 협회는 산하 제주시지회에서 2007년 제주장애인골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골프의 기초를 마련했다. 제주시지회는 지도자 및 경기위원 양성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해 100여명 이상 교육하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제주시지회는 제주도지사배 전국장애인파커골프대회 개최를

두고 골프팀이 3회에 걸쳐 장애인 돌기 ATPGA대 전국연예인친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제주장애인스포츠클럽 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많은 장애인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외도1동에 화려하게 기공을 알렸다. 우리의 소망이 이뤄졌다고나 할까. 장애인 운동선수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사는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급년 내 완공한다는 말만 무성할 뿐 진척이 더디다.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보편적 시설에서 경기력 향상과 체력 단련을 위해 땀을 흘리는 날이 언제 올까?

제주도는 비장애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시설은 어떠한가? 우리 모두 넓은 시야로 크게 한번 바라보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한림에 위치한 문볼 구장이 전부다.

작년에 충남에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제주도

팀은 무려 메달 102개를 획득해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것이다. 전국 13위에 입상한 성적은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괄목할 만한 결과물이다.

나는 앞으로도 장애인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우수선수 육성과 지원에 전념하며 생활체육에도 헌신의 힘을 다할 심산이다. 그러나 개인과 장애인 단체의 의지만으로 제주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 도 차원에서 진정으로 장애인스포츠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시설 면에도 최선의 지원을 하길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중 협회장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SEOUL WHEELCHAIR MARATHON 2017

04.29 (SAT) 08:00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폴 | 하프 | 핸드사이클 | 5Km 경쟁 | 5Km 어울림

주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주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협력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재정후원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지원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공식음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TEL. 02.2289.4320